

제 1 교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3 제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시즌3 제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공통 과목 정답 •

1	①	2	⑤	3	②	4	③	5	①
6	④	7	②	8	③	9	②	10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⑤	22	⑤	23	④	24	①	25	②
26	③	27	③	28	④	29	①	30	③
31	③	32	②	33	④	34	⑤		

•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

								35	②
36	③	37	④	38	②	39	①	40	①
41	①	42	②	43	①	44	⑤	45	①

•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

								35	②
36	③	37	④	38	③	39	①	40	①
41	⑤	42	①	43	②	44	⑤	45	④

• 공통 과목 해설 •

[1~3] 독서론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독서 성과는 개인의 읽기 능력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오답풀이] ② 성취 목표 이론을 제시한 엘리엇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③ 숙달 목표를 갖는 이들은 수행 목표를 갖는 이들보다 독서 과제 수행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 ④ 수행 목표는 유능함을 과시하려는 성향의 수행 접근 목표와 남에게 뒤처지거나 무능력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수행 회피 목표로 나뉜다. ⑤ 숙달 목표와 수행 접근 목표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 목표를 추구하던 이가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보기> 내용 파악

[보기설명] 어려운 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명예와 공명을 위한 책 읽기에 대한 홍대용의 견해가 제시돼 있다.

[정답풀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종일 소리 내서 읽거나 눈이 책에서 떠나지 않는 등 명예를 드러내는 책 읽기를 열심히 하고서 그 성과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는 유능함을 얻어 과시하려는 성향의 수행 접근 목표를 갖는 이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수행 회피 목표를 갖는 이들이 능력 향상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수행 목표를 갖는 이들은 어려운 과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려운 책이어서 ‘괴롭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와 유사한 모습에 해당한다. ② 숙달 목표를 갖는 이들은 어려

운 과제 앞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만 스스로 굳게 참는’ 것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취미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책에서 새로운 유익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숙달 목표를 갖는 이들이 독서 과제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읽은 성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밀천 삼아 명예를 구하’는 것은 책을 읽는 목적이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수행 접근 목표를 갖는 이들이 유능함을 과시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3. [출제의도] 지문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 파악

[정답풀이] 혼자 독서하는 경우에는 숙달 목표를 갖는 이들의 동기 부여가 강해지고 모둠 독서의 경우에는 수행 접근 목표를 갖는 이들의 동기 부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때, 독서 상황에 따라 독서 동기를 강하게 하는 성취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참고 자료에 의하면 독서 전략에 따라 독서에 도움이 되는 목표 설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때 독서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③ 참고 자료에 의하면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동기 부여와 독서 전략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④ 참고 자료에 의하면 주변의 다른 독자들의 도움이 있는 모둠 독서의 경우에는 성취 목표 중 수행 접근 목표가 독서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⑤ 참고 자료에 의하면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진 독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경우에 더 효과적인 독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4~9] 예술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8쪽

4. [출제의도] 독서 활동지 파악

[정답풀이] (가)에서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상반된 주장도, 또 이를 절충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의 미술사적, 미술 비평적 의의와 더불어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회화의 본질을 평면성에서 찾은 그린버그의 예술관을 화제로 삼고 있다. ② (가)에서는 피카소와 레핀의 작품 및 키치를 제시하며, (나)에서는 마네와 인상주의 및 팝아트 장르를 제시하며 그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키치에 대한 그린버그의 인식이 편협하다는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가)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으나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갖는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일체의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무관심적 관조로 작품을 대해야 쾌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칸트가 회화의 본질로 언급한 것으로, 그린버그가 말하는 아방가르드와 닮아 있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적이다.

[오답풀이] ② 캔버스의 표면에 대상을 가상적으로 재현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전통 회화의 특성으로 그린버그가 간주하는 아방가르드의 적에

해당한다. ③ 그린버그에 따르면 아방가르드의 적은 주제나 내용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전통적인 회화 경향과 당대에 확산되던 키치이다. 이들은 모두 작품의 미적 형식을 배척한다. ④ 기본 전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대중 문화가 곧 키치로서 아방가르드의 적에 포함된다. ⑤ 그린버그에 따르면 회화의 고유 영역을 찾기 위한 자기비판의 정신을 버리고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회화의 현실에 눈감는 것은 전통 회화에 안주하는 것으로 아방가르드의 적이다.

6. [출제의도] 이유에 대한 추론

[정답풀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이 근대 회화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잘 규명해 주는 이유는, 그의 이론이 회화만이 갖는 고유한 매체에 주목하여 회화의 본질을 찾으려는 미학적 관점으로서 재현을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평면성을 강화하는 회화의 내적 논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 논리는 형상을 점차 배제하고 형식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추동되는 성격을 띤다.

[오답풀이] ① 형식주의 미학 이론에 따르면 마네, 인상주의, 입체주의 같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회화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양산된 기만적 문화인 키치가 아니라 회화의 본질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이다. ② 회화의 발전을 이끄는 내적 논리가 캔버스의 표면, 즉 색면에 있다는 형식주의 미학 이론은 그린버그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마네, 인상주의 같은 근대의 화가들이 등장한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이들 화가들이 그린버그의 미학 이론을 자신들의 작품에 적극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작품 외적 요소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객관적 비평을 통해 드러난 것은 마네나 인상주의 작품이 지닌 문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예술사적 의미이다. ⑤ 작품 이해나 감상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는 형식주의 비평이 새로운 비평 방식으로 정착된 것은 그린버그가 자신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에 따라 근대 회화의 흐름을 규명한 이후의 일이다. 즉 이 이론을 비평의 영역에 도입하여 회화 작품 평가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 형식주의 비평이라는 새로운 비평 방식이다.

7. [출제의도] 특정 관점에서의 반박

[정답풀이]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절대적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린버그의 관점에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아방가르드는 칸트의 자기비판을 계승한 것으로 회화의 고유한 특징을 토대로 전통 회화를 비판하며 회화의 본질을 찾으려 한다. 이는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회화만의 매체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반면 키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팝아트는 평면성에 기초하여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하고 대중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상의 함축적 변형이란 평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대상의 재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③ 아방가르드가 자기비판의 방법을 통해 찾은 회화만의 매체 특성은 평면성이다. 그것은 과거의 회화에도 있었던 특성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회화의 유일한 고유 특성이므로 아방가르드가 회화의 ‘새로운 매체 특성들’을 찾았다고 할 수 없다. ④ 아방가르드를 통해 찾은

순수한 형식은 감상자의 심미적인 쾌를 채워주는 것이지 본능적인 쾌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쾌를 충족시키는 것은 키치이고 그래서 그린버그는 키치를 진정한 예술이라 보지 않았다. ⑤ 예술 향유자들 사이에 계층적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 부르디외의 견해를 외적 요소를 배제하는 그린버그가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구분하기 위해 논거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설혹 부르디외의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그린버그는 키치에 대해 자기비판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모색하려는 장르라고 볼 리 없으므로, 자기비판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구분할 리가 없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관점 적용

[보기설명] 미술관을 다녀온 학생의 감상문이 소개되어 있다. 언급된 세 작품에 대해 (가)의 그린버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형상이 완전히 배제된 추상 회화, 두 번째 작품은 사실적인 경향의 회화, 세 번째 작품은 전형적인 팝아트 작품이다.

[정답풀이] 그린버그에 따를 때 전형적인 팝아트 작품인 세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된 문화적 생산물인 키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학생이 재미와 편안함을 느낀 것은 오락과 같은 대중문화의 역할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다만 그린버그가 작품의 내용이 심미적인 쾌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회화의 본질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형식만이 심미적인 쾌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그린버그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마음의 요동침을 느낀 것은 작품의 형식이 불러일으킨 심미적인 쾌의 경험일 수 있다. 즉 색면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에 대해 반추하여 얻은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② (가)에서 그린버그는 사실적인 경향을 띠는 레핀의 회화가 키치와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즉 내용의 강요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관제문화가 되는 키치의 속성을 사실적 경향의 작품이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것은 주제가 강요된 결과로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함에 따른 대중 통제의 효과일지 모른다고 그린버그는 설명할 수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형식주의 미학 이론을 적용한 객관적 비평의 문제점을 작품 이해나 감상에서 전문가의 의견만을 중시하고 일반인의 다양한 방식의 이해와 감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도 형식만 남아서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감상자가 이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예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의 글쓴이는 그린버그의 관점에서의 아방가르드의 정신, 즉 기성의 예술 관념을 부정하면서 혁신을 이끌며 자기비판을 강조하는 예술 운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세 번째 작품이 아방가르드 정신을 상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팝아트에 속하는 세 번째 작품은 비록 대량 복제를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형식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넘어섬으로써 새로운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9. [출제의도] 동음이의어 파악

[정답풀이] ⑥의 '인상(印象)'은 문맥상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라는 의미이며, ②의 '인상(引上)'은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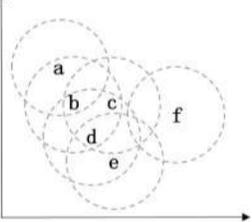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밀도 영역은 각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안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모든 점을 대상으로 밀도 영역을 정하므로, 핵심점이나 경계점은 물론, 이상점 역시 최소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밀도 영역에 속하게 된다.

[오답풀이] ② DBSCAN에 따르면 r이 클수록 더 많은 점들을 포괄하게 된다. 그러면 원 안의 점들이 최소 개수인 m보다 많아서 군집을 형성하기 쉬워진다. r이 큰 만큼 이때의 군집의 크기 역시 클 것이다. 또한 r이 클수록 군집들이 하나로 묶이기 쉽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r이 클수록 군집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③ DBSCAN은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은 맞다. 다만 데이터들 중에서 오류로 인해 잘못 측정된 값이 포함된 데이터인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인 것은 아니다. ④ 임계값은 이상치 지수와 비교하여 이상치를 판정하는 일종의 잣대이다. 이는 이상치의 사례들을 토대로 정하는 것으로, 측정값들의 평균값이나 중앙값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인 이상치 지수의 경우에도 측정값들의 평균값이나 중앙값 등을 토대로 나름의 산식을 구하여 정한다. ⑤ DBSCAN은 이상치의 사례가 극히 적어서 임계값을 정하기 힘들 때에 사용되는 것이다.

11.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보기설명] 여섯 데이터, 즉 여섯 개의 점을 평면에 도식화한 것이다. 반지름인 r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최소 개수인 m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군집의 양상과 이상점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른쪽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점을 a~f로 표기한 것이다.



[정답풀이] m은 최소 개수이므로 0보다 큰 자연수여야 한다. m을 2 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은 2 혹은 1로 설정함을 의미한다. m을 2로 설정할 경우에 점 a부터 e까지는 모두 각 밀도 영역에 2개 이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핵심점이 된다. 점 f만 이상점이 된다. m을 1로 설정할 경우에는 모든 점이 핵심점이 된다. 즉 m을 2 이하로 설정하면 알고리즘 완수 후에 경계점은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각 점은 온도, 습도, 풍량에 대한 측정값을 차원 축소 변환법을 이용하여 평면에 표시한 것이다. 이는 여러 항목의 측정값을 또 다른 두 개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인 만큼, 세로축은 물론, 가로축은 온도, 습도, 풍량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값이다. ③ m을 3으로 설정하면, 핵심점으로 판정되는 점은 b, c, d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세 개의 군집이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각 군집에 다른 군집의 핵심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세 군집은 결국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다. 알고리즘 완수 후 군집의 개수는 한 개인 것이다. ④ m을 4로 설정하면, 핵심점은 b와 d 두

개가 된다. 군집이 묶이더라도 핵심점은 여전히 핵심점이므로 핵심점이 한 개인 상태는 아니다. 이상점은 f로 한 개가 맞다. ⑤ m을 4로 설정하면 b와 d가 핵심점이고, a, c, e는 군집의 핵심점이 아니므로 경계점이다. 즉 경계점의 개수는 세 개다. m을 3으로 설정하면, b, c, d가 핵심점이고 경계점은 a, e의 두 개다. 즉 m을 4로 설정하면 3으로 설정할 때에 비해 경계점이 하나 더 많다.

12. [출제의도] 특정 상황에 대한 추론

[정답풀이] 지문에 따르면 주어진 데이터의 수에 비해 m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이상치의 판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예를 들어 m이 지나치게 크면 인근에 많은 수의 점이 밀집해 있어야만 군집이 형성되므로 군집이 잘 안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상 데이터의 점이 핵심점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이상치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m이 지나치게 작으면 이상치도 핵심점으로 판정되기 쉬워진다. 즉 m이 지나치게 작으면 이상치가 정상 데이터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m이 지나치게 작으면 거의 모든 점들이 핵심점으로 판정될 것이므로, 정상 데이터로 판정되는 점이 늘어날 것이다. ② m이 지나치게 작으면, 모든 데이터가 핵심점으로 판정되어 이상치로 판정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시로 m이 1인 경우를 떠올려 보면 된다. ④ m이 지나치게 크면 군집이 잘 안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군집의 수가 많아질 수가 없다. ⑤ m이 지나치게 크면 군집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군집들이 겹쳐져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될 것이므로 하나의 커다란 군집으로 묶이기도 힘들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적절성 파악

[정답풀이] ①의 '파악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의 의미이므로, '나타나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 17]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6쪽, 270쪽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소득세가 감소하면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구매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근로 시간의 효용은 이전보다 증가한다. 반면 근로 시간의 효용이 증가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의 효용은 이전보다 감소한다.

[오답풀이] ① 민간 부문에서 걸린 조세가 정부 지출로 쓰이면 그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므로, 정부 지출은 사회적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③ 대체 효과는 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변하는 현상이므로, 대체재인 한 재화의 가격 변동시에 발생한다. ④ 중립세는 민간 부문에 초과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가리킨다. ⑤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인 한계 비용이 일정하면 공급 곡선이 수평선 모양을 띠는 등, 한계 비용의 변화 양상에 따라 공급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

15. [출제의도]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풀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중립세에 가까운 조세일수록 초과 부담은 적게 발생한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인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수록 중립세에 더 가까운 조세이다.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가 수

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는 초과 부담을 더 적게 발생시키는 경향을 띤다.

[오답풀이] ①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의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값과 같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 부담과 같다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제외한 값이 초과 부담에 해당한다. ② 초과 부담은 민간 부문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인 동시에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사회적 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근로와 여가 시간의 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교란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중립세에 더 가까운 조세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일수록 초과 부담은 더 적게 발생한다. ⑤ 개별 소비세의 세율이 낮으면 초과 부담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일수록,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부담은 더 많이 발생한다.

16. [출제의도] 지문 내용에 대한 정리

[정답풀이] ㄱ. 개별 소비세 부과 전후에 소비자의 순편익인 소비자 잉여는 a, b, c를 합한 것에서 c로 줄어들었다. 즉 a만큼의 몫은 조세 부과 전에는 소비자 잉여로서 소비자의 차지였다. ㄴ. 조세 부과 후에 a만큼의 몫은 소비자 잉여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정부 그 누구의 차지도 아닌 것으로 초과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ㄷ. 조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가 a와 b를 합한 것만큼 감소했으므로 조세 부과가 일으킨 부담은 a+b만큼 발생한다. 참고로 b는 초과 부담이 아닐 뿐, 조세 부과가 일으킨 부담에는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보기> 상황에 대한 이해

[보기설명] 대체재 관계의 두 재화가 생산되는 가상 국가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재 중의 한 재화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거나 두 재화에 모두 일반 소비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얻는 순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세 부과 후에 두 재화의 상대 가격 비율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조세가 부과될 경우에 소비자가 얻는 순편익인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될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병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얻는 순편익은 줄어든다.

[오답풀이] ① A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면 A의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생산자는 조세를 대신 납부하고 남은 부분인 기존 가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조세 부과 후에도 A와 B 간의 가격 비율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4:3으로 인식되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B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병이 인식하는 B의 가격은 이상적인 자원 배분 시의 재화 생산 비용인 자원 비용보다 더 크다. ③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므로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병은 A와 B 간의 가격 비율을 기존의 4:3으로 보고 소비량을 결정할 것이다. ④ 일반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할 때마다 모든 재화에 일률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어 구매력을 저하시키므로 모든 소비자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소득세는 근로 시간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므로 병이 투여할 근로 시간의 효용이 낮아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18 ~ 21] 고전 소설

→ 연계 지문: 작자 미상, 「방한림전」(수능특강 126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풀이] 방관주는 자신이 이듬해 봄에 죽을 것을 알고 ‘한번 돌아가(죽어서) 상제를 뵈옵고 부모를 만남이 소원’이라며 죽음 자체는 싫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참고로, 방관주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부모를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방관주는 영 부인을 생각하며 ‘서로 기대하여 한낱한시에 죽기를 바랐더니, 이제 내 죽으면 그 누구를 의지하리오? 가련하고 슬프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먼저 죽고 나서 혼자 남게 될 부인의 처지를 염려하며 슬퍼하였다.

[오답풀이] ① ‘상공이 하 고집하시니 발설이 어려워 지금껏 함구하고 있으나’에서 드러나듯이, 유모는 방관주와 영 부인이 동성 간의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유모가 두 사람이 자기 몰래 부부의 인연을 이어 왔다고 서운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영 부인은 유모를 격하게 꾸짖는 방관주에게 유모의 말은 ‘단지 주인을 위한 충심에서 한 말’이니 그렇게 질타할 일이 아니라며 유모를 두둔했지, 방관주에게 유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다. ③ 방관주는 임금과 세상을 속인 죄로 죽게 될 것이라는 도사의 글을 읽고, ‘일개 아녀자로서 남자 행세’를 오래 하였으니 ‘천벌’이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였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방관주가 잔치 자리에서 처량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방관주가 큰 잔치를 열어 옛 친구와 친척들을 부른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이 방관주에게 머지않아 죽음이 닥칠 것을 알고 잔치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 방관주의 슬픈 노래를 듣고 모두가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방관주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발화의 표현 방식 이해

[정답풀이] [A]는 너무도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는 듯 보이는 상대(‘상공과 부인’)의 태도로 인해 격한 심정이 된 유모가, 평소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상대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토로하는 발화이다. 동성 결혼을 이어 가고 있는 상대가 이제까지와는 태도를 달리하여 현재의 사태를 돌리기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십 세가 지나셨으니 두 소저의 아름다운 젊음이 아깝’다고 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 젊음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까우니 더 늦기 전에 ‘한 군자를 얻으사 아황과 여영 자매같이’ 살라고(즉, 한 남자를 만나서 그의 두 부인으로 살라고) 권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오답풀이] ② ‘훗날의 일이 어찌되리이까’, ‘어찌 괴이하지 않으리이까’,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이까’ 등에서 유모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아황과 여영 자매같이 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라는 말에서, 유모가 옛 인

물들을 거론하여 상대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유모는 ‘부부의 인륜(= 군신·부자·형제·부부 따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을 언급하기도 하고, ‘음양이 서로 어울림이 뗏뗏한 일’이라고 하기도 하며, ‘부모의 장차 제사를 받들 자손 없음’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말을 통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러한 도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⑤ ‘기둥에 불이 붙었는데 제비와 참새는 모른 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당장의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희희낙락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제비와 참새에 빗대어 풍자한 말이라 이해할 수 있다. 유모는 이러한 말을 인용하면서 상대의 처신이 이와 다를 바 없이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서사적 관련성 파악

[정답풀이] 방관주는 ㉠(‘도사의 글’)을 통해 자신이 이듬해 삼월 사일에 죽을 것을 알게 되고, 이듬해 봄이 되자 지인과 친척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고 즐기다가 문득 슬픈 마음이 들어 ㉡(‘비가’)을 부른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기회는 다시 안 올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 감정을 노래로 표출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방관주가 ㉠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보는 그가 ㉡을 부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방관주가 ㉠에 대해 오해하는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것이 ㉡에서 증폭되어 표출되는 상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방관주는 ㉠에 적힌 자신의 전생 내력과, 그에 관련된 현생에서의 운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④ ㉠의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시고자 하시는도다. 원컨대 공은 내년 삼월 초사일에 옥체를 뵈도록 하라.’는 방관주가 이듬해 삼월 사일에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은 그 암시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기정사실로 수용하면서 슬퍼하는 반응을 담고 있다. ⑤ ㉡에는 인생의 마지막 잔치를 즐기며 슬픔을 느끼는 방관주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이는 ㉠을 읽고 슬퍼하는 방관주의 감정과 대조된다고 할 수 없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는 방관주가 슬픈 노래를 부르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 물음에 방관주는 ‘제가 본디 기질이 약하고 질병이 있어 인간(=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둘러대었다. 방관주의 주변 인물들에게는 방관주가 남장 여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방관주가 여성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의 반응에 성별 질서를 거스른 삶에 대한 비판적 윤리의식이 관련되어 있을 수는 없다. (<보기>는, 「방한림전」이 당대의 완고한 가부장적 윤리 의식과 이 작품의 독특한 서사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작품 내에 한계를 설정해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장한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그려 내고도 그것이 음양의 질서를 거스른 것이며 하늘의 벌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설정을 통해 당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서사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보기>의 이러한 설명을, 주인공과 작중 인물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모는, 방관주와 영 부인 사이의 비밀을 누설해서 두 사람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싶지만 방관주의 고집 때문에 억지로 참아 왔노라고 말한다. 그러자 방관주는 만일 유모 때문에 '괴이한 소문이 난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고 하는 말로 크게 꾸짖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는 남장 여자로서 출세한 주인공이 가진 정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방관주가 자신을 키워 준 유모에게 화를 낸 후, 영 부인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나고 말하면서 방관주의 자를 부른다. (참고로, 이 시대에 사람을 그의 자로 부르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지, 부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영 부인이 남편의 자를 부른 것은, 방관주와 대등한 부부 사이로 지내고자 한 평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농담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방관주는 '가장의 자를 함부로' 부른다며 영 부인에게 '여도(= 여자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를 상기시키고 있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는 남장 여성인 주인공이 일상에서 남녀의 도리를 구분하는 일에 유의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전체를 볼 때, 방관주는 영 부인과의 일상에서 남녀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비밀 유지에 철저히 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방관주가 실제로는 남장 여성임에도 가부장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또는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역할에 집착하는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다.) ③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자 행세를 하며 여성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관주의 삶은, 그가 '천궁에 있을 때 여색을 좇아 방자하였기에 (하늘이) 금생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은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삶이 전생의 죄로 인해 하늘이 내린 형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내 일개 아녀자로서 남자 행세를 함이 이미 오랜지라, 어찌 천벌이 없으리오?'라는 방관주의 말은, 성별을 속이고 살아온 것이 큰 죄라고 여기며 그에 따른 벌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을 통해 그의 죄책감을 짐작할 수 있다.

[22~27] 현대 소설-희곡 통합

→ 연계지문 : 유치진, 「소」(수능특강 213쪽)

→ 작가연계 : 채만식, 「탁류」(수능특강 208쪽)

22.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풀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은, 근대적 교육에 의해 인권 사상을 갖게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 주사 부부가 인륜이라든가 하는 최소한의 도덕관념은 갖춘 사람들이기에 드러내 놓고 딸을 팔 수 있는 부류의 뻔뻔한 인간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정 주사 부부가 딸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을 위하여 혼처를 정하려 하면서도, 그것이 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딸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태수가 초혼이 아니라 '새장가'를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결점 때문에 혼인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처가의 사업 밀천까지 대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② 문맥을 고려할 때 '자자에 관주'라는 표현은, 정 주사가 태수의 조건들 모두에 대해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 앞 문단에서 태수의 됨됨이나 태도 등과 관련된 짝짝한 마음을 정 주사가 애써 모른 채하고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은 정 주사가 자기 내키는 대로 태수를 높이 평가한 뒤에 자신이 경제적 형편과 관련된 욕심 때문에 그런 높은 평가를 한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혼처가 나타났다고 흡족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의 '이거야 선량한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은, 공부를 잘못 하는 아들이 갑자기 좋은 성적표를 받아 오면 이유를 의심하기보다 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며, 그것이 혹 어리석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다. ㉢은 정 주사가 내심에 짝짝한 점들을 애써 모른 채하면서 태수를 좋은 사윗감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계산속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④ ㉣은, 아직 혼약을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수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면 태수가 자신에게 사업 밀천을 얼마나 줄까 헤아려 보며 기대감을 가지는 정 주사의 심리를 내적 독백을 통해 드러낸 부분이다.

2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는 사윗감인 태수에 대해 내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한 짝짝함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정 주사 부부의 태도를, 감각적인 대상(악취가 나는 사물) 앞에서 하는 대화의 양상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다. 정 주사 부부가 이 훌륭해 보이는 혼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의심을 애써 덮어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는 회상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는 인물들의 상황에 대해 서술자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풍자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의 두 인물은 '이미 악취가 나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태도를 함께 취하고 있으므로, 두 인물 사이에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⑤ ㉤에서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유사한 양상의 대화가 반복되지만,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24. [출제의도] 핵심 어휘의 의미와 기능 이해

[정답풀이] 문맥을 고려할 때 정 주사 부부는, 딸과 태수가 결혼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여기면서, 딸이 그 결혼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 의심하고 두려워함.)'는 피하려 들고 있다. 따라서 ㉠은 사윗감에 대한 의혹을 회피한 채 태수와 딸의 결혼을 좋게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부각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국서 처는, 빼앗긴 소 대신에 이제껏 밀린 도지(= 소작료.)를 탕감하고 거기다 눈을 다시 소작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논임자와 합

의한 것에 대해 ㉢('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주 그렇게 화해가 됐?'라는 말은 그런 함의로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이냐는 물음으로, 상황이 그렇게 정리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③ ㉠은 당면한 상황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에도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더욱 뚜렷하게 그러한 심리를 담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과 ㉢ 모두 지난날에 대한 인물의 회한과는 무관하다.

25. [출제의도] 대사, 지시문을 통한 극적 상황 이해

[정답풀이] [B]에서는 '말뚝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지시문과 말뚝이를 향한 '저리 나가!'라는 국서의 대사를 통해, 무대 위에서 국서가 말뚝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서는 사음에게 거칠게 대드는 말뚝이를 사음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 사람이 헛간 밖으로 함께 나가서 대화를 이어 가려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아버지 좀 낚요.'라는 말뚝이의 대사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시문은 없지만 국서가 말뚝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서는 말뚝이가 사음을 더 화나게 할까 봐 염려하여 말뚝이를 말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③ [C]에는 '이렇게 도장까지 받아 왔지요.'라는 국진의 대사와 함께, 국서가 그 문서를 받아서 본다는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대사와 지시문을 고려할 때, 도장 찍힌 종이가 소품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 [D]에서 국서는 소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대사를 통해 드러낸 후 울면서 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어지는 국서 처의 '좀 울지 말우.....'라는 대사는 상심한 국서를 위로하는 말이므로, 국서가 들어간 방 쪽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⑤ '젊은 사람'이 '우편(= 오른쪽) 하늘을 가리키'는 동작을 한다는 지시문과 '저것 보세요!', '불이야요.'라는 대사를 볼 때, 이 인물이 가리키는 쪽에 불이 났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극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 상황을 환기하는 붉은 색 조명이 무대 위의 해당 지점에 비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풀이] 국진은 대사를 통해, 소를 잃은 대신 도지를 탕감받고 거기다 소작하던 눈을 계속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지주가 '시원스럽게' 확답하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이 말들을 통해 그가 소작하던 눈을 빼앗기지 않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말뚝이는 사음에게 대들고 있으나 국서는 그런 말뚝이를 말리고 있다. ② 말뚝이는 사음에게 '어디 헐 대루 해 봐요! 흥! 헐래야 헐거나 있어야 말이지.'라는 말로써 먹을 곡식도 남지 않았는데 빼앗아 갈 것이 있겠느냐고 대들고 있을 뿐, 소를 빼앗아 갈 경우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국서의 처는 '농사꾼이란 그저 손바닥 같은 거라두 파먹을 땅땀기가 있어야 살지요.'라는 말로 농사지을 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을 뿐, 소를 가지

고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국서는 밀린 도지 대신 빼앗긴 자신의 소가 '이 동리에서는 일등 가는' 소라고 말하며 소를 남의 손에 넘긴 것을 분하게 여길 뿐, 소를 더 비싼 값에 넘겼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가)의 해당 부분은 정 주사 부부가 태수에 대해 미심쩍은 것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려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자가 설명한 부분이다. 즉, 확인하려 하다가 그 의심된 바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면 딸을 팔아넘길 작정이 아닌 다음에야 태수와 결혼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독백의 형식으로 정 주사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 아니라, 서술자가 정 주사의 심리를 해석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가)의 '대체 얼마나 둘리(구해) 주려고? ~ 그러면 무얼 해야만 하기도 수나롭고(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고) 이문(= 이익으로 남는 돈.)도 박하잡고(보잘것없이 적지 않고) 두루 팬찰을꼬?' 부분은, 딸의 결혼으로 생길 것이라고 기대되는 돈으로 무슨 장사를 해서 자신의 형편을 펴게 할까 하는 정 주사의 궁리를 독백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발화나 독백을 제시하는 것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이 독백을 통해 독자는 물질에 대한 정 주사의 욕망을 알 수 있게 된다. ②(가)의 해당 부분은 인물의 발화나 독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술자의 직접적 설명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는 정 주사 부부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차마 드러내 놓고 딸을 팔아먹을 만한 '담보(= 겁이 없고 용감한 마음보.)'는 없지만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 사실상 딸을 파는 것과 다름없음을 암시함으로써 정 주사 부부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④(나)에서 풍년인데도 수확한 곡식이 쌀 한 톨 남지 않았다는 말뚝이의 대사는, 소작농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불합리한 소작 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인물의 입을 빌려 드러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⑤(나)에서는 '젊은 사람'의 대사를 통해 말뚝이가 논임자의 공간에 불을 질렀음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대사를 통해 관객이 떠올리는 사건은 지주에 대한 소작농의 반감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는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주제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8 ~ 31] 고전 시가

→ 연계 지문: 김인겸, 「일동장유가」(수능특강 66쪽)

→ 정구, 「청산아 웃지 마라~」

28.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비교

[정답풀이] (가)는 '청산'과 '백운'에게 화자 자신이 늙어서도 세속에 남아 있는 이유를 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지내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임금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처자의 손가운데 골몰하여' 안온하게 지내다가 '보잘것없는 부유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것보다 '나랏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서는 '홍진'에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화자의 진술을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도 있겠으나, (나)에서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찾아볼 수 없다. ②(가)의 '청산'과 '백운'은 화자가 은거하고 싶은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 자연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에서도 자연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가), (나) 모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한탄과는 무관하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가)의 '백발 홍진에 내 즐겨 다니더냐'는 자신이 늙은 나이에도 세속에 남아 있지만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물음의 형식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A]는 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화자가 상상을 통해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창해를 건너가는 것'에서부터 '불사약'을 '대궐에 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화자의 상상일 뿐, 그러한 행위를 묘사하여 화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A]는 진시황의 명으로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 삼천 명과 함께 삼신산을 찾으러 갔던 서불이 진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곳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 전설을 염두에 두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떠나는 화자의 상상을 펼쳐 낸 부분이다.) ③(가)의 '청산', '백운', '백발', '홍진'은 푸른색, 흰색, 붉은색의 대비적인 색채를 환기하고 있지만,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청산'과 '백운'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홍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먼 곳, 즉 세속과 동떨어진 자연을 의미한다.) ④[A]에는 가상의 상황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임금의 만수무강이라는 소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다. ⑤(가)에는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A]에는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풀이] (나)에서 화자가 난감함을 느끼는 것은 '글(시)'을 지어 달라고 '식전부터 왜놈이 무수히 와서' 끝없이 '필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변 장로'가 화자 일행을 '강호'로 데려가려고 와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진술은 있으나, 그들이 매우 다수라는 진술이나 일정이 촉박하여 난감하다는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나)에는 승선을 알리는 '상선포'를 쓰고 난 후, 닻을 들어 올리라는 '거정포'를 쓰고, '배다리를' 올리고, '돛'을 펼쳐서 배가 출항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② 화자는 배 위에서 '마음이 활발하여 걸릴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여정을 앞두고 죽음도 개의치 않는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차운'하여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일본인들에게 '글(시)'을 써 주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폼속에서 다시 내어' '턱에 닿게 쌓이'는 것은 '글(시)'을 적어 달라고 일본인들이 내미는 종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병한 이내 근력 쇠진할까 싶으도다'라는 말로 자

신의 기력이 다할까 하는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의 일행을 만나려고 '이삼천 리 밖'에서 와서 '대엿 달씩' 기다린 일본인들이 '만일 (내가 그들에게) 글을 아니 주면 낙망하기 어떠할꼬'라는 말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나)의 화자는 먼 항해에 나서면서 '나랏일로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현재 처지와, '처자'의 곁에서 지내다가 '보잘것없는 부유처럼' 생을 마치는 삶을 대비하면서, 후자는 '서글프'고 전자는 '쾌할(마음이 유쾌하고 시원스러울)'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화자가 '나랏일로 나왔다가' '보잘것없는 부유처럼' 죽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덧붙이자면, 화자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그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위험한 여정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서 세속과 동떨어진 자연을 의미하는 '청산'과 '백운'이 '백발'의 나이에도 여전히 '홍진'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늙은 나이에도 '청산'과 '백운'을 찾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화자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②(가)의 화자는 '홍진'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삶이 즐겁지 않지만 '성'을 갖고 나서 떠나려는 마음으로 아직 '홍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즐거움보다 나라의 일을 우선시하는 신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④(나)의 화자는 일본인들에게 글을 써 주면서 나라에서 자신을 보낸 뜻이 일본인들을 '제어하여 빛있게 하심이라'라고 밝히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조선의 앞선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인들을 교화하는 것을 사행단의 소임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나)의 화자가 '나라에서 보낸 뜻'을 생각하며 몸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글을 지어 주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개인적 사정을 돌아보기보다 사행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32 ~ 34] 현대시

→ 연계 지문: 윤동주, 「참회록」(수능특강 91쪽)

→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 14」

32.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비교

[정답풀이] (가)의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나 (나)의 '녹'을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자아 성찰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제시한 것은 반성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가)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나 (나)의 '혹갈빛 대문의 녹'은 모두 화자가 관찰하고 묘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가)와 (나)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뽀얀 사랑'과 같은 것들이 '녹이 되어 슬어 있다'고 말하며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녹'은 화자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고뇌가 해소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가)에는 '욕될까', '살아왔던가', '했던가'와 같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이에 대해 답을 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도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이해

[정답풀이] (가)에서 화자는 ㉠(‘과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후에 ‘참회의 글’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스스로의 내면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면서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는/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이 화자의 이상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며, ㉡이 화자가 처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에 ‘남아 있는’ 화자의 ‘얼굴’은 자아를 의미하므로, ㉠이 화자와 외부 세계를 잇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무관하다. ㉢(가)의 화자는 ㉠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치열한 성찰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게 하는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의 화자의 반복적인 일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은 (가)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성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의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서 ㉡을 찾아냈다고 할 수는 없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화자가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치열하게 닦을 때에 비로소 ‘거울 속에 나타나’ 오는 모습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는 행위는 현재의 자아를 거둬들여 성찰하는 것이며, 이렇게 치열한 성찰의 결과로 ‘거울 속에 나타나게 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화자가 자기희생의 자세로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예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치열한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화자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그것을 참회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해 ‘나타나 온다’고 현재 시제로 표현한 것은, 치열한 성찰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낼 뿐, 화자가 그것을 현재 참회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오답풀이] ㉠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에 걸친 자기 삶에 대한 ‘참회의 글’을 쓰고 있으므로,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은 현재의 화자가 참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 화자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했던 ‘부끄러운 고백’에 대해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화자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참회 역시 소극적인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미래에는 현재의 이 참회를 다시 참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참회는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다시 참회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과거가 될 것이며,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는 현재의 참회가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했다고 여기게 될 미래의 참회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새로운 참회를 거둬들여 하는 것이다. ㉣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자신의 ‘거울’을 닦으려 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미래에 현재의 참회를 돌아봤을 때 현재의 참회가 소극적인 것에 그쳐 미래에 ‘부끄러운 고백’으로 다시 참회하게 되지 않도록 현재의 자아를 거둬들여 성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자에게 있어서 미래의 참회 내용은 현재의 참회를 더욱 치열한 것이 되게 만드는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다.

•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1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연설 계획 파악

[정답풀이] 연설자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면 그 효과로 ○○시에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롭게 창출될 일 자리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가수로서 ~ 매번 아쉬웠습니다.’라고 하여 가수로서 공연했던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 ‘2만 명 이상 ~ 가깝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시가 공연장 건립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저는 ~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청중과 마찬가지로 ○○시에 애정이 깊다는 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그래서 대규모 공연은 ~ 제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전문 공연장이 없어 좋은 공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6. [출제의도] 연설 전략과 내용 파악

[정답풀이] 연설자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 ○○시에 세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교통 체증 심화라는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공연장 건립 시 지하철도를 연장하고 지하 터널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약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차단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연설에 반박하는 내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풀이] 연설자는 영국 □□시의 대중음악 공연장 설립 사례를 통해 ○○시도 □□시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 건립 사실 하나만을 들어 긍정적인 예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와 같이 반박할 수 있다.

[38 ~ 42]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30쪽

3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

[정답풀이] (가)는 2문단에서 도서실 재단장을 위한 설계 과정을 ‘첫 단계’, ‘그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1문단에서 도서실 재단장을 위한 설계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2문단에서 ‘딱딱한 의자와 삐걱거리는 책상’, ‘부족한 서가’ 등 도서실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학교 도서실과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3문단에서 설계안이 반영된 도서실 공사에 대한 도서부원들의 감상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3문단에서 계단식 서가의 활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9. [출제의도] 교쳐 쓰기 파악

[정답풀이]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보기>의

초고와 달리 이용자 참여 설계가 반영된 학교 도서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이 어떠한 조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 마지막 문단의 셋째 문장에 ‘도서부원으로서 우리는’이라고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 마지막 문단의 둘째 문장에 ‘책을 읽고 강연도 들으며’라고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 마지막 문단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 찾길 바란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 마지막 문단의 첫째 문장에 ‘도서실에서 학생들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라고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40. [출제의도] 맥락에 따른 발화 이해

[정답풀이] [A]에서 ‘학생 2’가 ‘학생 1’의 발화를 재진술하는 부분이나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 [A]에서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학생 3’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학생 1’은 ‘한 모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학습실을 다섯 개 정도 만들’자는 실현 방안을, ‘학생 2’는 ‘학습실들 사이는 접이문으로 구분해 두’자는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B]에서 ‘학생 1’은 ‘왜 그렇게 ~ 설명해 줄래?’라고 ‘학생 3’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 뒤 그 답에 대해 ‘하긴 앞으로 ~ 큰 것이 좋겠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B]에서 ‘학생 2’는 ‘좋아’라고 ‘학생 3’의 제안에 동의한 후 ‘다만 새 서가의 크기는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이어야 해.’라고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를 정리한 회의록 파악

[정답풀이] (나)에서 학생들은 도서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기존 서가보다 큰 서가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42.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적용된 설계안 파악

[정답풀이] 학습실들 사이는 접이문으로 구분해 두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 3’이 도서실 활용 수업 시 유용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설계안에 반영되어 있다.

[오답풀이] ㉠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서가보다 큰 서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 ‘이달의 도서’가 눈에 띄도록 소책장은 출입문 앞쪽에 배치하기로 했다. ㉣ 도서실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을 도서실 밖에 두기로 했다. ㉤ 도서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 반납기를 출입문 바깥쪽에 두기로 했다.

[43 ~ 45] 작문

43. [출제의도] 글쓰기의 내용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1쪽

[정답풀이] (나)의 1문단에는 일상에서 계단 이용을 꺼리는 사람이 많음을 언급하며 이들이 계단을 두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하는 상황(㉠)에 대해 단순히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던 경험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44. [출제의도] 추가하는 내용의 적절성 평가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6쪽

[정답풀이] ㉤의 첫째 문장에서는 ‘계단 오르는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고, 하체 근력 강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여 ‘2

문단에 제시된 계단 오르기의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문장에서는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여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볼 것을 권유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2쪽

[정답풀이] [자료 1]을 보면 계단 오르기의 칼로리 소모량(221kcal)이 등산(250kcal)보다는 수영(240kcal)과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계단 오르기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1문단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자료 1]을 보면 계단 오르기의 칼로리 소모량(221kcal)은 평지 걷기(120kcal)의 약 2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간을 투자할 때 계단 오르기가 평지 걷기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므로 2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료 2]를 보면 계단 오르기 실험 참가자 6인 모두의 하체 근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계단 오르기가 하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 실험 사례이므로 2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료 3]을 보면 계단 오르기 전에 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부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계단을 오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3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 3]을 보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게 되면 체중의 5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계단 오르기를 끝낸 후에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와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3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이해

[정답풀이] '나뭇잎'을 [나문닙]으로 발음하는 것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므로, '나뭇잎'을 [나문닙]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렸다.

[오답풀이] ① '장맛비'는 '춧불'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준 발음은 [장맛뻬]이며 [장만뻬]는 허용 발음이 된다. ③ '콧+물'을 '코물'로 적으면 [콘물]로 소리 나는 것을 음운 규칙에 따라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④ '후+날'을 '훗날'로 적으면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로 [훈날]로 소리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⑤ '가외+일'을 '가윗일'로 적으면, 앞 단어의 끝음절에 자음이 올 경우 뒤 단어의 첫음절 모음에 'ㄴ'이 첨가될 수 있다는 'ㄴ' 첨가로 'ㄴ' 소리를 설명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형태적 특징 파악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5쪽

[정답풀이] '버피'는 체언 '범'과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의/의'는 앞 체언이 존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 혹은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일 때 쓰였으므로, 무정 명사 뒤에 쓰였다는 진술은 틀렸다.

[오답풀이] ① 관형격 조사 'ㅅ'은 한자로 표기된

단어와 결합할 때에는 그 바로 뒤에 단독으로 쓰였다. ② 관형격 조사 'ㅅ'은 한글로 표기된 존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결합할 때에는 중성에 쓰였다. ④, ⑤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앞에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언이 올 때 쓰였다. 또한 존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 뒤에 쓰였다.

37. [출제의도] 동작상과 완료상의 구분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7쪽

[정답풀이] '밖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의 '불고 있다'는 바람이 부는 상황이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뛰놀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폭락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슬픔에 빠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외투를 입고 있는 중과 입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의 두 가지 모두로 해석된다.

38. [출제의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2쪽

[정답풀이] '신바람'은 명사 '신'과 명사 '바람'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로는 '건넌목, 길짐승'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새벽녘'은 명사 '새벽'과 의존 명사 '녘'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잘나다'는 부사 '잘'과 동사 '나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떡거리'는 용언의 어간 '떡-'과 의존 명사 '거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보살피다'는 용언의 어간 '보-'와 용언의 어간 '살피-'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9.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9쪽

[정답풀이] '농사일에는 손이 많이 간다.'에서 '가다'는 주어 '손이'와 부사어 '농사일에는'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가족들과 동물원에 구경을 갔다.'에서 '가다'는 주어와 부사어 '동물원에', 목적어 '구경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②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내다'는 모두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돌다'는 모두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놀라다'는 모두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나타나다'는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40 ~ 43] 매체-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68쪽

40. [출제의도] 뉴미디어의 특성 이해

[정답풀이] 누리집 하단에 '관련 기관 누리집 바로가기' 기능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 청소년 센터 누리집 이용자들이 청소년 센터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누리집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시한 것이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누리집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기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하단에 '시설 예약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청소년 센터의 실내 체육관 또는 소/대강당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검색 기능은 이용자들이 ○○시 청소년 센터 누리집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41.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파악

[정답풀이] ㉔은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인 '소란장'에 참가 신청을 하려면 먼저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동아리 홍보 포스터와 함께 소란장 기획위원회 공식 메일로 발송'해야 한다고 그 방법의 선후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뉴미디어 활용 방식 이해

[정답풀이] '성겸'은 대화의 마지막에서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투표함을 만들었다.

[오답풀이] ② '우신'은 지난 회의의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 지난 회의 회의록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하였다. ③ '단아'가 '성겸'의 특정 발언에 직접 대답을 달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겸'이 보낸 파일을 확인했음을 알리기 위함이지 '성겸'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④ '성겸'은 지난 회의의 내용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작성한 소란장 참가 신청서를 회의 참여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일을 전송하였다. ⑤ 회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화 공간을 생성한 것은 '보희'가 아니라 '성겸'이다. '보희'는 새로 생성된 대화 공간에 '우신'을 초대하였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생산 이해

[정답풀이] '보희'는 포스터에 '회원 상시 모집 중'이라는 문구 정도만 삽입'하'고 제안하였고, 포스터에는 이것이 반영되었다. 동아리 회원 모집에 관한 내용이 항목화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블로그 매체의 특성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9쪽

[정답풀이] ㉔은 '별새'의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물의 이용 범위를 명시한 문구에 해당한다. '별새' 자신이 공유한 자료가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것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52쪽

[정답풀이] '산딸기'는 웹툰의 독자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보고 그에 대한 견해를 댓글로 밝혔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청피망'은 '과학, 경제 등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웹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얻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을 포함해 많이 있다고 언급하여 웹툰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② '금빛'은 자신이 이용하는 웹툰 플랫폼에 인기 있는 소재만을 다루는 웹툰이 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독자의 선호를 고려하는 것이 지나칠 경우 웹툰의 소재가 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별새'와 '청피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여 웹툰이 수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웹툰의 폭력적, 선정적 표현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산딸기'와 달리, '파도'는 법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파도'는 '작가나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